

이재명, 호남 압승...“지역 발전, 전략적 선택”

NEWS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어대명’ 기류...민주당 텃밭 광주·전남, 이 후보에 몰표
본선전 투표를 우려 여전...“민주, 달라진 모습 보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당의 적자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예초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와 이 후보에 대한 반감으로 투표율이 다소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지역민들은 비상계엄 후 정국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이 후보에게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26일 치러진 호남권 순회 경선 결과, 이 후보가 88.6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이어 김동연 후보 7.41%로 2위, 김경수 후보 3.90%로 3위를 기록했다.

지난주 충청권·영남권에 이어 이날 호남권을 합한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 89.04%, 김동연 6.54%, 김경수 4.42%로 집계돼 이 후보가 텃밭에서 대세를 확실히 굳힌 셈이다.

호남권 투표율은 53.67%로, 선거인단 37만4141명 중 20만809명이 투표했다. 앞선 경선에서 당원 투표율은 충청권이 57.62%, 영남권이 70.85%였다.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율은 지난 대선 경선이나 전당대회와 비교하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경선이 2021년 20대 대선 경선 호남권 투표율(55.23%)보다 수치로는 1.56%포인트 낮지만, 권리당원 수가 20대 경선(20만명)보다 17만명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8만명의 권리당원이 투표에 더 참여한 것이다.

전당대회 투표율과 비교해도 이번 경선 투표율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전당대회 투표율이 광주 34.18%·전남 37.52%를 기록했고, 2024년 전당대회 때 호남권 투표율이 20%대로 폭락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경선 투표율(53.67%)은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박범계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호남권 이번 경선 투표율은 지난 대선 경선과 비슷했지만, 권리당원 수가 21만에서 37만 명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당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텃밭인 호남지역의 경우, 예초 ‘어대명’ (여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강해 무관심 속에 투표를 저조가 우려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후 정국 안정과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이 전략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광주·전남·북) 합동설명회에서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기호순) 후보가 단상에 올라 손을 맞잡고 있다.

여기에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이재명 후보 측 인사들의 적극적인 구애가 일부 ‘반명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지방의원, 지역 조직이 호남 경선을 앞두고 총동원돼 투표 독려에 총력을 펼쳤다.

강기정 광주시장 등 단체장 등도 당원 자격으로 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경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 후보도 이례적으로 호남지역 방문에 1박 2일을 투자하는 등 공을 들이기도 했다.

또 이 후보는 광주 인공지능(AI), 전남 신재생에너지 등 사실상 지역별 최대 현안

사업을 망라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지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호남권 권리당원 첫날 투표율이 23%대로 저조하면서 지역에 비상이 걸렸는데, 막판 높은 투표율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며 “이는 지역민들이 지역 발전과 정국 안정을 위해 견제와 균형이 아닌 ‘될 사람에게 표

를 몰아주는 선택’의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선전에서도 호남의 투표율이 높을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텃밭에서 민주당이 계속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본선에서도 호남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은?

흥기 피습 등 위기 극복...두번째 대선 도전

소년공 생활...흙수저 딛고 주경야독으로 사법고시까지
탄핵정국 사이다 행보...총선 압승으로 대권 지위 다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 역정을 걸어왔다.

최근 펴낸 책에서 어린 시절을 기록한 대목의 첫 문장을 ‘나의 어린 시절은 참혹했다’고 쓸 정도로 이 후보는 가난과 불우한 가정환경을 견뎌야 했다.

자신을 괴롭혔던 가난은 오히려 ‘살아야 한다’는 원동력이 됐고, 이 후보는 검정고시를 거쳐 독학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지역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존 재갑을 각인시킨 뒤 경기지사를 거쳐 2022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무수한 비판 속에 인천 계양을 국회 의원과 당 대표를 지내며 ‘담금질’의 시간을 거친 이 후보는 이 기간 흥기 피습 사건을 겪는 등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지난 총선 압승을 이끌며 당내 탄탄한 리더십을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생애 두 번째 대선 본선 도전을 확정했다.

경북 안동 화전민 가정에서 태어난 이 후보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만 12살 때 경기 성남으로 이주해 영세공장에서 소년공 생활을 했다.

시계공장에서는 독한 약품을 다루다 후각을 잃었다. 야구 클럽 공장에서 일할 당시에는 프레스에 끼인 팔이 구부러져 평생 장애를 안게 됐다.

공장에서 일하며 주경야독으로 고입·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장학금을 받고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 알게 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하게 했고, 이는 사법고시에 매진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됐다

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1986년에 사법고시(연수원 19기)에 합격했다. 연수원 동기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금까지 정치 역정을 함께 하는 동지다.

연수원 시절 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의는 그를 노동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회고한다.

‘성남시민모임’을 창립해 시민운동을 이끌다 2005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했다.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낙선했으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돼 4년 뒤 재선까지 성공했다.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한 그는 2016년 11월 촛불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며 ‘사이다’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패했지만, 의미 있는 3위를 자산으로 삼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

경기도정을 이끄는 동안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자신만의 정책 의제로 구체화하며 대권 재도전의 칼날을 갈았다.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으나, 2020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무죄를 확정받으며 고비를 넘겼다.

2021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혈투 끝에 이낙연 후보를 물리치고 승리해 본선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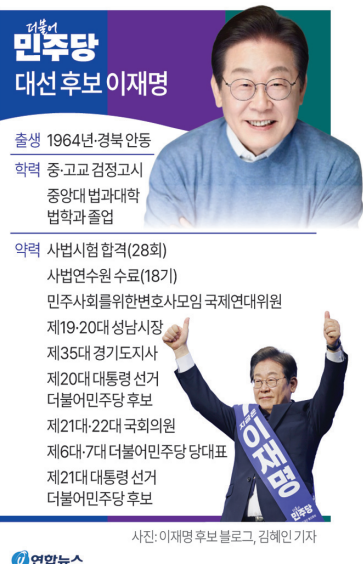


사진 이재명 후보 블로그, 김재민 기자

끝내 본선에서 발목을 잡았고, 윤석열 후보에게 대권을 내줘야 했다.

대선에서 패한 후보들은 당분간 ‘휴지기’를 가졌던 전례와 달리, 이 후보는 대선 패배 직후 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이끌었다.

동시에 자신은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비우고 떠나자 그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2년 8월 당 대표로 선출된다.

지난해 1월 2일에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방문 도중 목에 칼을 찔리는 습격을 당했다. 동맥 손상을 피해 목숨을 건진 뒤 이끈 총선에서 야권의 압승을 견인하며 대권주자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야당 대표로 계엄 해제 요구 안전을 통과시킨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완수한 순간, 사실상 대선 재도전도 확정된 셈이었다.

여기에 지난날 공직선거법 함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오랜 기간 그를 끈질기게 괴롭힌 ‘사법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K.SAMHEUNG

케이삼흥

당신의 내일을 위한 새로운 대안

www.ksamheung.com